



◇길산복지(金山福地)

## 불교의 시각

### 점 "수상·관상은 심상만 못하다"

#### 풍수 비보사탑 등 긍정적 인식

불교에서 보는 점과 풍수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부정과 긍정으로 엇갈린다.

먼저 점에 대해서 경전은 한마디로 '행해서도 안되고 봐서도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잡아함 점복녀경(占卜女經)>에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대표적이다.

"쇠뿔로 정수리가 갈리고, 온몸에는 불이 붙은 모습을 한 그 중생은 과거세에 라자가하여 살인 남자 집쟁이와 여자 집쟁이다. 그들은 점치는 것으로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았다. 남을 속인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가 남아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수상(手相)이 관상(觀相)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心相)만 못하다."는 역학계의 격언도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말이다.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아무리 잘 생겼어도 남에게 호감을 주거나 마음을 잘 쓰는 것만 못하다는 이 말은 결국, '세상 만사란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는 뜻이다.

간혹 일부 스님과 재가불자 중에는 점복을 도교를 위한 '병편'이라고 말하지만, 이별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은 세상 만사가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믿는 '운명론'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반면 풍수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 풍수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는 도선 국사(827~898)가 동리산문의 하나인 옥룡산문을 개창한 선승인데, 비보사탑(碑補寺塔) 역시 좋은 집자리나 밭자리 집기 위주의 집술 풍수가 아닌 '병든 산천과 인심을 치료한다'는 중생구제의 원력이 담긴 방편이란 시각이다.

국토산천에 대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도선 국사의 비보사상은 땅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본다. 침침에서 기가 과한 곳은 사해 주고, 허한 곳은 보해 주듯, 그 원리를 땅에 적용한 것이 비보사탑설이다.

"인심과 산천지세는 서로 달지 않음이 없다. 인심이 불합(不洽)하니 지역마다 나누어 구한(九輪)을 만들기도 하고 삼한(三韓)을 만들기도 한다. 부처님의 도(道)를 약속으로 삼아 병든 산천을 치료하도록 한다."

자연에 기생하는 인간이 아닌 아픈 땅을 돌보고 치유해서 끌어안으려는 적극적인 자연미학이자 생태사상인 비보사상은 최근, 과학적인 합리성을 인정받으며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명의 선(線)'



◇'내님이 그리자와 우나나'



◇이렇게 두려운 현대인들의 귀의처는 어디인가. 갤러리 사바나의 '점전'은 현대사회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주술을 통한 인간의 기복행위를 궁·부정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무속과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한 '화위길상' 작품전에서 큐레이터(왼쪽)로부터 부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 점은 왜 보나... 호기심 뿐인가

## 占展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바나  
31일까지 전시



◇'점수, 장풍독수'



◇'화위길상(化爲吉祥)'

점(占)과 풍수(風水)는 종교를 떠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티를 잡는 일에서부터 인생상담과 진로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다양하다. 특히나 장기 불황이라는 짙은 그림자는 오늘날의 한국 민중들이 더욱 더 점점과 지관(地館)을 찾게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고픈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점과 풍수는 비과학적인 미신이란 비판에 부딪치면서도 더욱 더 절길 생명력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젊은층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점 문화. 이를 순수 미술작품으로 조명해 보는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3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바나에서 열리는 '점(占)전'. 14명의 중견작가가 평면 9점, 입체 4점, 비디오 1점을 출품했다. 아직도 점과 풍수에 기대는 오늘날의 세태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큐레이터 이희정씨는 "우리 사회에서 점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인간들의 본능적이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파헤쳐보고 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김용현씨의 직석(積石)-경천애인(敬天愛人)

'S'는 강원도 오대산 아래 성황당의 돌무더기를 통해 민간신앙의 원형을 그리고 있다. "돌무더기는 우리가 과거에 소망을 빌던 기원의 장소다. 오늘날에는 교회나 사찰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하려는 옛 가르침은 이러한 돌무더기를 통해서 소박한 종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정한 종교적 형식을 갖지 않고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종교적 또는 주술적(呪術的)인 형태의 민간신앙은 기성 종교의 기층부에 침투하면서 재상을 좇고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홍지연씨의 '화위길상(化爲吉祥)'은 무당집의 기물들과 인도 중국의 종교화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은 설치작품. 작가는 현대사회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복의식과 무의식적인 '신성(神聖)을 향한 의지'는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무속과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김성래씨의 '길산복지(金山福地)'는 풍수를 상징하는 옛 지도를 새긴 조각들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가 길(吉)하고 복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작품이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포근하고 정감있는

우리나라 산봉우리 형태를 느티나무 재료의 모형과 화강석으로 형상화했다. 노순석씨의 '화도희선(學道希仙)-2007'은 두 여인 가운데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자를 풍속화풍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것은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이며 점과 부처(佛祖)를 통해 온갖 일에 희망이 된다"고 설명한다.

수북한 활판이 둘러싸고 있는 홍성담의 '점수-장풍독수'는 풍수에 기대는 민중의 소박한 기원을 담았다. 반면 이근범씨의 '지권의 초상'은 풍수지리를 관할하는 지관의 모습을 유령 형상으로 그렸다. 현대 사회에서 풍수지리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생각을 글이 숨기지 않은 것 같다.

이 밖에 부적, 화부패, 궁합, 손금 등의 소재로 점 문화를 풍자한 작품들도 선보였다. 신정철씨는 사진 합성작품 '문배락 맞을 부적'에서 일화현금의 꿈을 꾸는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했고, 유비호씨는 비디오 영상 작품 '단가(斷歌)'를 통해 온갖 일에 희망을 걸고 팔뚝을 바라는 현대인은 마치 주술사나 마한(巫)이라고 말한다.

조승씨의 '조교주 전성시대'는 한국행과 영생을 파는 신흥종교 교주를 코믹하게 형

상화한 합성사진이다. 점을 신앙처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사이버 교주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는다. 이민주씨의 '공명(供養)-공합(共合)'은 공합을 추상화로 표현했다.

정수진씨의 '무대'는 서양의 주술문화와 신앙적 요소를 포함시킨 상징적인 유희작품이다. 김윤경씨는 장갑 위에 손금을 돌출시킨 가족작품 '운명의 선'을 내놨다. 길쭉한 손금을 손금으로 알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담았다.

석영기씨는 회부패를 그린 '내님이 그리자와'를 통해 회부패를 떠올리게 한다. 우창훈씨의 '신어미'는 무당과 신물의 초상화를 장식화같은 배경 위에 배치함으로써 옛 유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갤러리측은 매일 두차례 담당 큐레이터들과 관객간의 작품설명과 질의응답 자리도 마련한다. 관람객이 즉흥으로 운세를 점치고 운세풍이 풍미를 가져가게 하기도 하고, 부적을 아주 싼 값에 파는 등의 이벤트도 있다. 02736-4371-2

글·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사진·고명배 기자(ybgo@buddhapia.com)



##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백합뿌리국찜

김시습이 스님이 되어 수락산 자락에서 목각(木刻)을 새기며 운둔의 세월을 보낼 때였다. 그가 만든 목각은 대부분 일하는 농부와 야쿠네였지만 그 중에는 수양대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형상도 있었다. 그가 새긴 목각들은 친구이자, 도반이었다. 그는 목각들에게 술을 권하며 곧잘 취하였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들을 때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흥겹게 술자리가

## 호흡기 장애-변비 치료 효과

는 손길을 뿌리친 채, 방문을 박차고 달려가다가 지금의 가회동과 안국동 사이의 길에 빠졌고 말았다. 다섯 길도 더 되는 셈에 빠졌으니 김시습이 불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신숙주는 생각했다. 종풍을 시켜 김시습을 끌어올리려 우물에 사람이 내려가자 목각인형 수만 개가 승복 한 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시습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허탈해진 신숙주는 건져 올린 승복을 깨끗이 빨고 새로 승복을 지어서 수락산에 보냈으나 바로 그 날로 새로 보낸 승복은 물론이고 김시습이 뿌리칠 때 신숙주가 잡았던 옷 조각마저 함께 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 김시습은 옷자락이 찢겨진 옷을 입고 다녔다. 봄에는 매화를 꽃고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은 김시습이 불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신숙주는 생각했다. 종풍을 시켜 김시습을 끌어올리려 우물에 사람이 내려가자 목각인형 수만 개가 승복 한 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시습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허탈해진 신숙주는 건져 올린 승복을 깨끗이 빨고 새로 승복을 지어서 수락산에 보냈으나 바로 그 날로 새로 보낸 승복은 물론이고 김시습이 뿌리칠 때 신숙주가 잡았던 옷 조각마저 함께 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 김시습은 옷자락이 찢겨진 옷을 입고 다녔다. 봄에는 매화를 꽃고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은 김시습이 불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신숙주는 생각했다. 종풍을 시켜 김시습을 끌어올리려 우물에 사람이 내려가자 목각인형 수만 개가 승복 한 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시습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허탈해진 신숙주는 건져 올린 승복을 깨끗이 빨고 새로 승복을 지어서 수락산에 보냈으나 바로 그 날로 새로 보낸 승복은 물론이고 김시습이 뿌리칠 때 신숙주가 잡았던 옷 조각마저 함께 돌아오고 말았다.

■라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백합(뿌리) 60g, 굴 30g
- ① 백합뿌리는 깨끗이 씻어놓는다.
  - ② 그것에 ①의 재료를 넣고 물을 끼얹어 잘 섞는다.
  - ③ 찜통에 ②를 넣고 1시간쯤 찌서 예쁜 점시에 담아낸다.
- 효능 ① 폐결핵 등으로 가래가 피가 나오거나 공기가 건조할 때 호흡기 장애에 좋다
- ② 변비에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효과 있다.